

## 2023년 금융시장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장명화 선임연구원(clarajang@kdb.co.kr)  
박찬우 연구위원(pcw742@kdb.co.kr)  
천경원 선임연구원(cheonkw@kdb.co.kr)

### I. 해외금리

### III. 환율

### II. 국내금리

2023년 해외 기준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서 금리인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에 따라 단기간 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신흥국들은 물가 등 경제상황과 함께 자본유출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해외 국채시장의 경우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로 국채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유로존의 이탈리아 등 재정취약국은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이 상존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선진국 흐름과 동조하며 금리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시 신용위험 확대 우려 등이 신흥국 채권시장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통화정책에 동조하고 물가 상승세 둔화를 확인하며 상반기 중 추가 인상 후 연내 유지될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면서 금리 상승압력이 낮아지고,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와 WGBI편입 등 수급환경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는 금리와 비용 인상 부담으로 투자수요 감소하여 순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며, 신용스프레드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회사채 투자수요 회복을 지연시켜 더디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으나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기조 속에서 상고 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며 평균 환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1,300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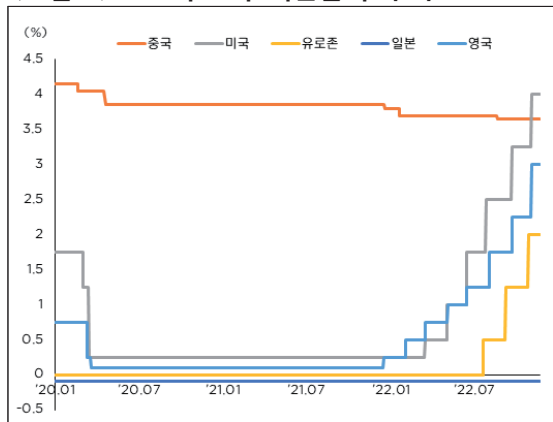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해외금리

## 1.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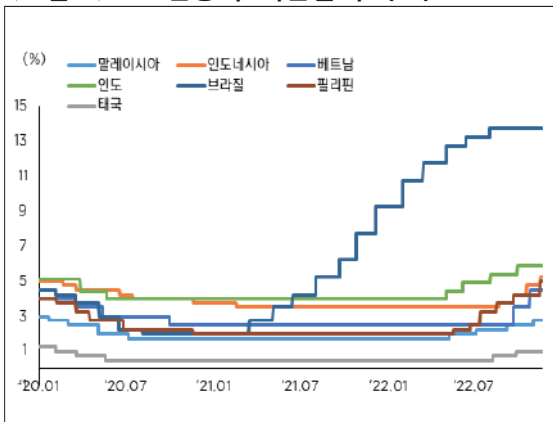
- 2023년 미국 등 주요국은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서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겠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에 따라 단기간 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22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동참하는 국가들과 독자노선의 국가들로 나뉘어지며 통화정책 공조 약화
  - 미국, 유로존 등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 일본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선진국의 긴축 강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 금리인상을 단행

<그림 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그림 2> 신흥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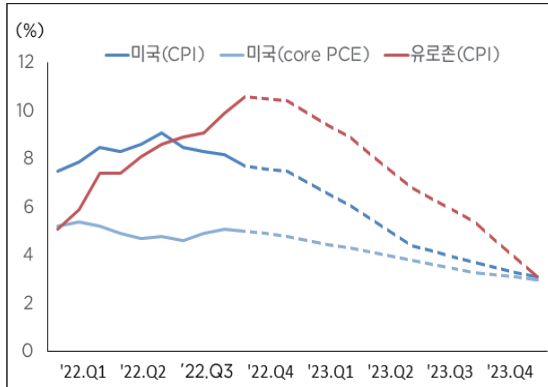


자료 :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 미국은 2022년 11월 FOMC에서 금리인상 감속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2023년 최종금리는 9월 점도표상 예상한 4.75%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와 물가상승률의 하락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에 비해 한발 늦게 긴축 전환한 유로존은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로 금리인상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2023년 중 기준금리를 3.0% 수준을 유지할 전망
  - ECB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2022년 연평균 8.1%를 기록, 2023년에도 5.5% 수준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sup>1)</sup>하며 인플레이션 제어 필요성 강조

〈그림 3〉 미국·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 Bloomberg Consensus (2022.11.21. 기준)

〈표 1〉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

(단위 : %)

	2023			
	Q1	Q2	Q3	Q4
미국	5.00	5.00	5.00	4.75
유로존	3.00	3.00	3.00	3.00
일본	-0.1	-0.1	-0.1	-0.1

주 : 2022.11월 기준

자료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 중국과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전망
  - 중국은 환율 및 자본유출 리스크 방어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준을 인하 등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2023년 물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다시 하회할 전망으로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 여타 신흥국들은 물가 등 경제상황과 함께 미국과의 금리격차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금리수준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021년부터 선제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취했던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타 신흥국 (1.0~5.9%)<sup>2)</sup> 대비 높은 13.75%<sup>3)</sup>로 9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

1) 2022년 9월 ECB 유로존 거시경제전망

2) 태국 1.0%, 말레이시아 2.75%, 필리핀 5.0%, 베트남 4.5%, 인도네시아 5.25%, 인도 5.9% 등

3) 2022년 11월 21일 기준

## 2. 시장금리

### □ 2023년 선진국 국채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및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점진적인 하향 전망

○ 2022년은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시장금리도 대체로 상승세 지속

-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강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반영하며 1월 1.6%대에서 10월말 4%대까지 상승
- 3월까지 0% 내외를 유지하던 독일 국채 10년물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에 따른 ECB의 긴축 강화로 10월말 2%대까지 상승
- 일본은 수익률 곡선 관리정책에 따라 국채의 변동폭을 제한하여, 국채10년물 금리는 변동범위(±0.25%)상한인 0.25%수준에서 횡보

○ 2023년 선진국 국채금리는 국가별 경기추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

- 미국은 과도한 긴축 후 뒤따를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점진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은 재정취약국 위주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상존
-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률 둔화 등은 금리 하락요인이나, 유럽 일부 재정 취약국의 신용위험 확대 우려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
-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각종 부채 및 정부 재정부담 확대가 국채 시장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

〈그림 4〉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표 2〉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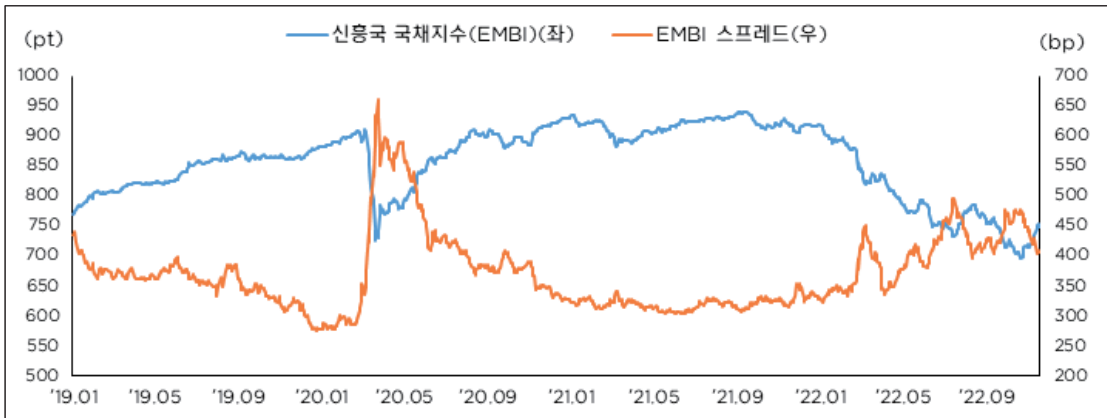
	2023			
	Q1	Q2	Q3	Q4
미국	4.00	3.82	3.70	3.50
독일	2.40	2.25	2.05	1.85
일본	0.25	0.25	0.23	0.23

주 : 2022.11월 기준

자료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 2023년 신흥국 국채시장은 선진국 흐름과 동조하며 금리 상승압력이 완화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시 신용위험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잠재
- 2022년 신흥국 국채지수(EMBI)<sup>4)</sup>는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및 주요국 금리 상승세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약세를 보였으며 EMBI 스프레드도 점차 확대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강한 긴축 지속 우려에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
  - EMBI는 1월 900pt 수준에서 10월말 700pt대로 하락, EMBI 스프레드는 1월 320bp 수준에서 하반기 400bp이상으로 확대
- 202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압력 가중에 따른 위험 회피, 취약국의 신용위험 확대 우려 등이 신흥국 채권시장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선진국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도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긴축기조 및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경착륙 징후가 심화될 경우 위험 회피에 따른 채권 매도압력, 부채부담 증가 등으로 신흥국의 신용위험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

<그림 5> 신흥국 국채지수와 EMBI 스프레드 동향



자료 : Bloomberg

4)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는 신흥국 국채가격을 반영하는 지수이며, EMBI 스프레드는 신흥국 국채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일컫는데, 이 스프레드는 위험자산인 신흥국 채권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동등하게 선호되기 위해 추가 제공해야 하는 수익률로서 EMBI 스프레드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을 의미

## Ⅱ. 국내 금리

### 1. 기준금리

□ 2022년 한은은 물가 상승과 대외 긴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3.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

○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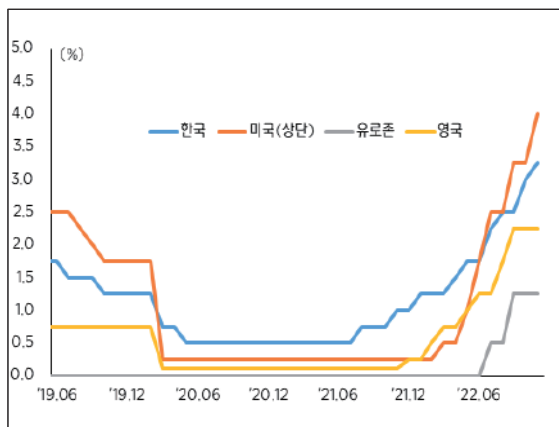
-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 서비스가격 상승 등 수요측 요인이 추가되면서, 높아진 물가 수준이 지속되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

\* '22년 주요국 금리 인상폭(bp) : (美) 375(現3.75%), (英) 275(現3.00%), (유로존) 200(現2.00%)

○ 한은도 목표 수준(2%)을 넘어 5%를 상회하는 물가와 대외 긴축 통화정책에 대응하고자 50bp 인상을 두 차례 단행하는 등 연초 대비 225bp 금리를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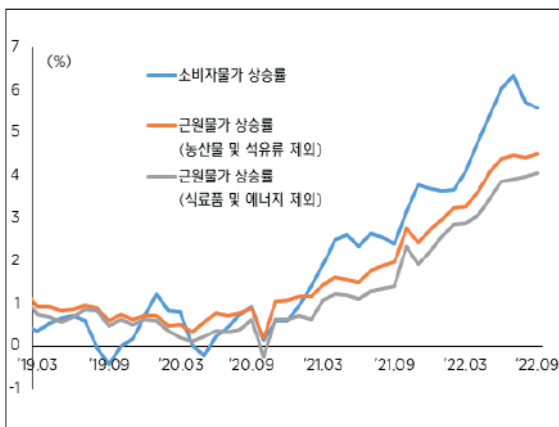
\* 기준금리 추이 : 0.75%('21.8) → 1.25%('22.1) → 1.75%('22.5) → 3.25%('22.11)

<그림 6>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각국 중앙은행

<그림 7> 물가 상승률 추이



주 : 전년동월비  
자료 : 통계청

□ 2023년 기준금리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국내 물가 상승세 둔화를 확인하며 상반기 금리 인상 후 연내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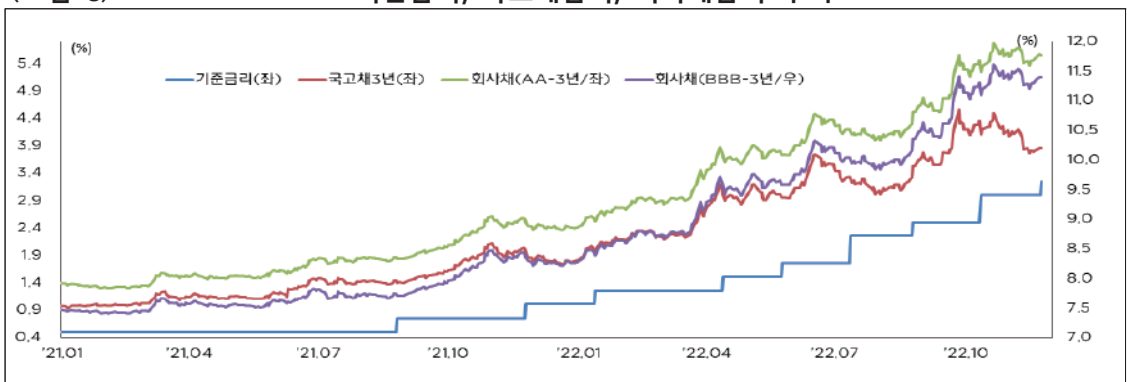
- 미 연준은 상반기 기준금리 정점을 형성한 이후 물가안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 금리를 유지할 전망
  - 한은도 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에 동조하고 물가 상승세 둔화를 확인하며 3.5% 수준까지 금리 인상 후 연내 유지할 전망
  - 다만, 미국 물가의 정점 통과 지연과 이에 따른 미국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 국내 금리 상승압력이 유지되는 등 불확실성도 존재
- \* 내외금리차(한국-미국 기준금리,bp) 추이 : 75('22.3) → 0('22.6) → △75('22.11)

## 2. 시장금리

□ 2022년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및 채권투자 수요 위축으로 4%대 진입하는 등 상승세를 보임

- 연중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금리 상승
  - 국채 발행 축소로 시장금리 상승압력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채권매수 주체의 순매수 규모 축소 양상을 보이면서 채권 수급 부담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 기금/보험 국채 순매수 규모 추이(조원) : 50.9('20) → 50.8('21) → 21.4('22.11)
- \*\* 시장금리 추이(월평균, %) : 2.07('22.1) → 3.44('22.6) → 3.87('22.9) → 4.23('22.10)

〈그림 8〉 기준금리,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추이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 자료 :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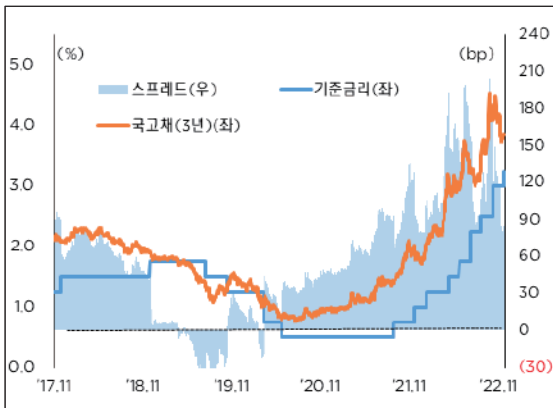
□ 2023년 시장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정책 당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로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이며 연평균 3% 후반 수준을 전망

○ 물가 상승세 완화, 경기침체 우려가 점증하면서 금리 상승압력이 낮아져 국고채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의\* 점진적인 축소로 시장금리는 상고 하저 모습을 보일 전망

\* 스프레드 추이(bp) : 34.2('20.6)→46.3('20.12)→79.9('21.12)→141.3('22.3)→ 180.3('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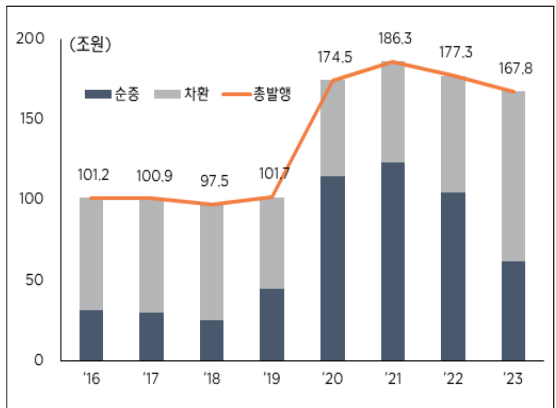
○ 2023년 정부 정책 기조가 재정 건전화,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채 발행물량이 감소<sup>5)</sup>하여 채권 수급 측면에서도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울러, 한국의 WGBI(세계채권지수) 편입<sup>6)</sup>이 가시화될 경우, 해외 투자 자금 유입으로 국채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 효과 기대

<그림 9> 국고채3년물 기준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10> 국고채 발행규모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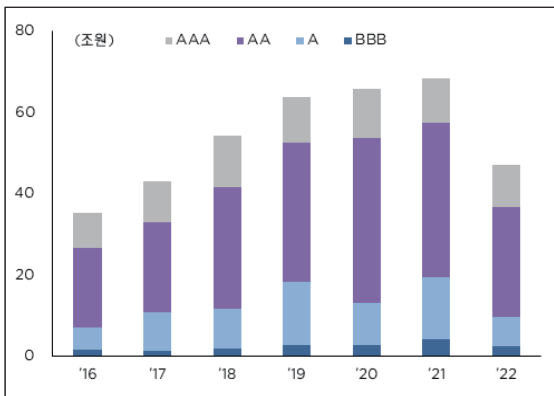
5)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2023년 국채발행을 2022년 대비 9.5조원 감소한 167.8조원으로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선회  
6) 블룸버그-바클레이 종합지수('02년 한국 편입), JP모건 신흥국 지수(신흥국만 대상)와 더불어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세계 주요국(23개국) 국채들이 WGBI에 편입되어 있으며, 기재부 추산 WGBI 편입 비중(2~2.5%) 감안시 500억 달러 이상의 채권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

### 3. 회사채 금리

□ 2022년 회사채 시장은 고금리 환경과 부동산 PF 관련 자금시장 유동성 경색 발생 등으로 발행 규모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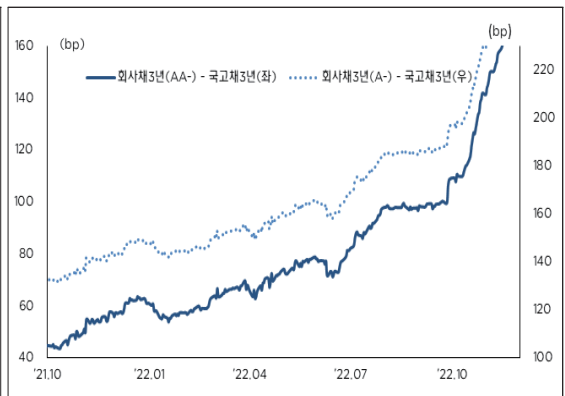
-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투자 수요 감소와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발행규모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 확대 지속
  - 2022.1~10월 중 회사채 발행 규모(67조원)는 전년동기 88조원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고
  - 신용스프레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확대세를 이어감
  - \* 신용스프레드 추이(국고3년-회사채AA-3년, bp) : 67('22.3) → 81('22.6) → 133('22.10)
- 한편 부동산 금융 불안 증가와 함께 2022년 9월 말 PF 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이 불이행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
  - 한전채, 은행채 등 초우량물 발행이 확대되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 투자수요가 위축
  -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과 맞물리면서 향후 회사채 투자심리 회복을 늦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그림 11> 회사채 발행 규모 추이



주 : 2022년은 1.1~10.31일  
 자료 : 코스콤

<그림 12> 신용스프레드 추이



주 : 회사채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2023년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로 회사채 순발행 규모 감소하고,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인상 경계감이 완화되며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

○ 고금리와 비용 인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자금 수요 감소하여 회사채 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

\* 설비투자전망 추이 : 94('21.12) → 99('22.1) → 101('22.3) → 92('22.11)

○ 금리상승 국면에서 확대되었던 신용스프레드는 시장금리가 하향되면서 하반기 이후 축소될 전망이나, 기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으로 회사채 투자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스프레드는 더디게 축소될 전망

- 또한 한전채, 은행채 등 초우량물 수급 부담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신용스프레드 추이(국고3년-회사채AA-3년, bp) : 37('21.6)→81('22.6)→133('22.10)

\*\*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 57.2조원('21.3Q)→58.8조원('22.2Q)→ 51조('22.3Q)

\*\*\*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 추이(%) : 369('19.3Q)→333('20.3Q)→348('21.3Q)→196('22.3Q)

○ 한편 부동산 PF ABCP 미상환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의 위험 요소가 있지만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CP 매입프로그램, 증권사 유동성 지원 등 48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시장을 지원

〈표 3〉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 안정 조치

구분	대상	규모(조원)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AA- 이상, CP, 전단채(A1),PF-ABCP(A1), 여전채(A+이상) 등	20
회사채 CP 매입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발행 CP를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16(+8)
증권사 유동성 지원	PF ABCP 차환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증권사 (담보 제공 대상 증권을 다양하게 확대)	3
PF사업자 보증 지원	우량 PF 사업이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인 사업 (PF에 신용보증을 제공으로 본 PF로 전환 가능하도록)	10
증권사, 증권금융 대상 RP 매입	한은이 증권사, 증권금융 대상 RP를 매입	6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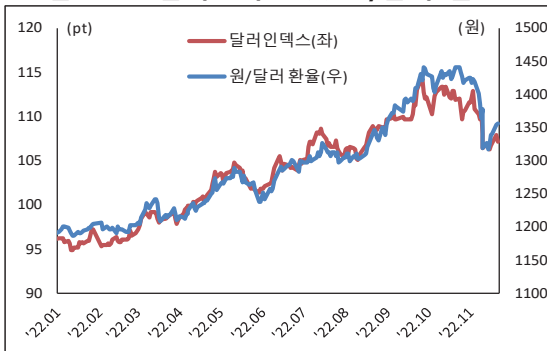
### Ⅲ. 환율

#### 1. 2022년 환율 동향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89원으로 최저 1,185원에서 최고 1,439원의 범위에서 움직이며 높은 변동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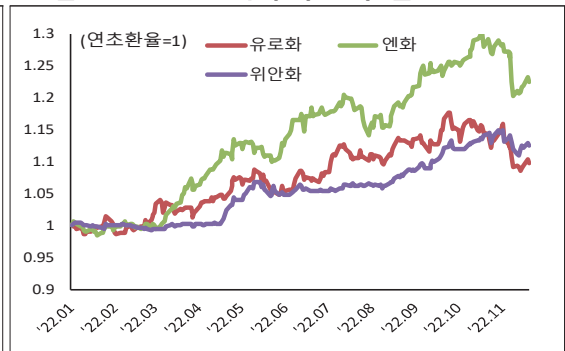
- 연준의 금리인상, 러-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이외 주요국 통화 약세 등으로 연초 1,191.8원에서 시작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9.28일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439.9원 기록
  - 달러인덱스7가 20년만에 최고치(9.27일, 114.2)를 기록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속
  - 유럽 및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에 따라 유로화, 위안화, 엔화 모두 약세를 기록하며 달러화 강세 환경 제공
-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되며 변동성 장세가 계속
  - 10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로 시장 기대치(7.9%)보다 낮게 발표되자 하루만에 59.1원이 하락 (11.11일)
  -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준인사의 발언이나 경제지표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 장세가 지속

<그림 13>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인포맥스

<그림 14> 연초대비 주요국 환율



자료 : 인포맥스

7)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의 가치

## 2. 2023년 환율 전망

□ 2023년 달러화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경기 침체의 가능성으로 금리인상 여력 약화 전망

\* 주요 IB의 연준 기준금리 예상 (블룸버그 컨센서스) : 4.5%(22.4Q), 5.0%(23.1Q), 5.0%(23.2Q), 5.0%(23.3Q), 4.75%(23.4Q)

- 달러 강세는 '23년 상반기 정점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취약국의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으로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기조는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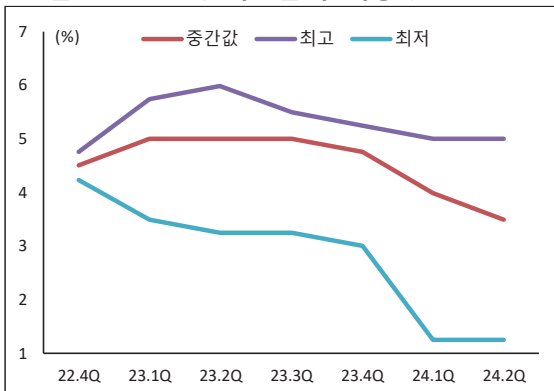
-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 완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를 거치며 확대된 정부부채\*와 높아진 금리 수준에 따른 취약국의 신용리스크가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

\* IIF 발표 전세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88.6('19.2Q), 101.5('20.2Q), 105.6('21.2Q), 102.3('22.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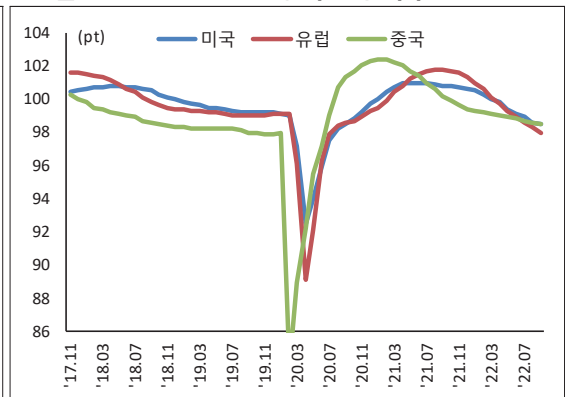
- 또한,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의 약세도 지속되며 달러화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5> 미 기준금리 예상경로



자료 : Bloomberg Consensus

<그림 16>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 인포맥스

□ 2023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기조 속에서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며 평균 환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1,300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환경 속에서 수출둔화 및 경상수지 감소,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평균적인 환율 수준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글로벌 무역 성장률 둔화 등으로 단기간내 수출여건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
    - \* 10월 수출증가율은(△5.7%) 2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10월 누적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64% 감소('21년 67,409백만달러 → '22년 24,136백만달러)
    - \*\* WTO는 '22년과 '23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각각 3.5%와 1.0%로 전망(이전 전망치 : 3.0%/3.4%)
  -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해외 투자자금 유입 둔화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2022년 7월 이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유출로 전환
    - \*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억달러) : 20.6(5월), 22.3(6월), 35.4(7월), △13.1(8월), △6.4(9월)
-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이 마무리될 경우 강달러 기조가 완화되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흐름에 강한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도 달러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를 고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 : 0.82('20년) → 0.89('21년) → 0.97('22년)

〈표 4〉 2023년 원/달러 환율 전망

구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평균 환율 (원)	1,234	1,345	1,290	1,370	1,310	1,340

주 : '22년 하반기는 예상치, '23년은 전망치